

라운아디디기 캄보디아팀 4월보고서

라운아디디기



라운

Hot Place에서 벌어지는



Hot한 이야기!!!

4월. 봄도 마음도 뜨겁던 시간

1일 *주일예배 *띠아모회의 *KT&G마중 *센터밀가루배달	2일 *밥퍼/빵퍼 *쥬크니어유치원방학 파티 *화장실청소 *집짓기/배페인트	3일 *밥퍼/빵퍼 *스텝한국어 *휴대폰구입 * 집 정전	4일 *밥퍼/빵퍼 *프놈유치원 방학파티 *회의	5일 *밥퍼/빵퍼 * 비자연장 (포이펫) -나래경서정민 *세족식 / 예배	6일 *밥퍼/빵퍼 *성금요일 예배 *회의	7일 *한인학교 *휴가계획
8일 *다일예배 *어린이예배	9일 *보고서마감 *시아누크빌출발 (pm 8:00) 휴가시작	10일 *시아누크빌도착	11일 *배 낚시	12일 *휴가 중..	13일(쥬츠남시작) *시아누크빌에서 출발 (pm 8:00) 휴가 끝	14일 *한인학교 *점심- 냉면사주심 *저녁- 식당(바이차)
15일 *다일예배 *어린이예배 (쥬츠남 끝)	16일 * 밥퍼/빵퍼 * 쌀라아띠 공지준비 * 회의	17일 *밥퍼/빵퍼 *쌀라아띠 공지시작 * 돈네빵배달 *스텝한국어 *명진쌤송별회	18일 *밥퍼/빵퍼 *스텝한국어 * 집 정전 *목욕탕&KFC * 명진쌤 한국가심	19일 *밥퍼/빵퍼 (봉사단25명60명) - 푸켓 *스텝한국어 *띠아모회의	20일 *밥퍼/빵퍼 * 승엽쌤과사진촬영 *스텝한국어 *외식(아띠,분생,명덕, 가영)	21일 *한인학교 *도서관홍보물만들기 *빙고판만들기
22일 *주일예배 *쌀 나눔 *KT&G 마중 * 김형길원장님오심	23일 *밥퍼/빵퍼 *쥬크니어 (숫자모이기) * 쌀라아띠시작 * 회의	24일 *밥퍼/빵퍼 * 도서관프로그램시작 *스텝한국어	25일 *프놈유치원(자리얏기 게임) *프놈중 *스텝한국어 *바칼로레아	26일 *밥퍼/빵퍼 *스텝한국어*쌀라아띠 * KT&G 이하나선배님과미팅	27일 *밥퍼/빵퍼 *쌀라아띠*스텝한국어 *유치원쌤들과식사 (돈네메콩)	28일 *한인학교 *김형길원장님과 저녁식사 *원장님공항배웅
29일 *주일예배 *쥬크니어 수업준비(바다그림) *자전거고치기	30일 *밥퍼/빵퍼 *쌀라아띠/스텝한국어 * 박정식KOICA오심 *자전거가져옴 *회의					

잡다음(시작!) 캠페인 준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9시 - 10시	쥬크니어 유치원	쌀라아띠 한글1	프놈 끄라운 유치원(오전)			
10시 - 11시		쌀라아띠 미술반2	프놈 끄라운 중학교	쌀라아띠 미술반2	프놈 끄라운 중학교	
11시 - 11시30분	밥퍼			쌀라아띠 한글2 (하늘)	밥퍼	한 한 한
11시30분 - 12시	쌀라아띠 한글1(성희) 쌀라아띠 미술반1(정민) 쌀라아띠 리코더(나래)	밥퍼 및 휴식	밥퍼 및 휴식	쌀라아띠 리코더	쌀라아띠 한글2 쌀라아띠 미술반1 쌀라아띠 리코더	
12시 - 1시		도서관 프로그램				
1시 - 2시			프놈 끄라운 유치원(오후)			
2시 - 3시	쌀라아띠 K-POP (경서)				쌀라아띠 K-POP	
3시 - 4시		스텝 한국어		스텝 한국어		
4시 - 5시	퇴근					
5시 - 6시		5시30분~ 크메르어 수업		5시30분~ 크메르어 수업		
ETC	팀 회의		바칼로레아		팀 회의	



떠 떠으!(Let's go)

1. 쫄츠남(설날)
2. 시아누크빌
3. 뽕퍼
4. 쌀라아띠
5. 도서관프로그램
6. 스텝한국어
7. 정전/차고장
8. 아띠퐁퐁/환경송
9. 아! 갸
- 9.5 바칼로레아
10. 아띠생각(350ppm)

1. 쫄츠남 (설날)



쫄츠남이란?

우리나라의 새해와 같은 명절로 양력 4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다. 캄보디아의 모든 국가적인 행사는 불력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쫄츠남만은 양력으로 계산되어 있다. 원래 불력으로 새해는 양력 12월쯤이 되는데 그때는 캄보디아의 농민들이 농사일 때문에 무척 바빠서 새해라고 쉴 수 있는 틈이 없을 때여서 언제부터인가 새해를 임의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4월 15일 경은 태양이 황도를 지나는 시기로서 캄보디아와 수직선상에 대항 있기 때문에 가장 더운 날씨로 이 날을 새해로 정했다고 전해진다. 쫄츠남이 되면 도시의 거의 모든 도로가 황해진다. 가게들도 문을 다 닫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자동차에 택시처럼 돈을 내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타고 거기에 잠까지 수북히 쌓아서 간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길이기에 모두가 양손 무겁게 선물을 한보따리씩 들고 간다. 쫄츠남이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고 새해이기에 쫄츠남 마지막 날에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서로 물을 시원하게 뿌려주고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풍습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쉽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도시나 시골에서 볼 수 있다.

밥퍼에 오지 않는 아이들

쫄츠남 전에 휴가를 다녀와 센터에 출근을 했는데 그 많던 아이들이 밥퍼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꼭 이곳의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쭉크니어 마을에서 한 아이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밥퍼에 가자고 하자 쫄츠남이라서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거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국교인 불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색다른 방학식

졸츠남 전후로 하여 3주간 단기 방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방학식에 맞게 과자를 들고 아이들을 찾았다. 쫄크니어 유치원에서는 과자를 나누어주고 KT&G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나누먹을 꺼라며 과자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기특했다.

프놈그라운 유치원에서도 똑같이 과자를 나누어주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면 운동장에 큰 춤판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조화식의 방학식을 생각했던 우리들로서는 문화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함께 베이비 파우더를 뿌리고 서로의 얼굴에 문히며 신나게 춤을 추었다. 음악은 최신 음악과 전통 음악이 번갈아 나왔는데 전통 음악이 나올 때는 원형으로 돌며 손을 많이 움직이는 전통춤을 추다가 최신 음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각자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우리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스스럼없이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면서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흥이 많은 이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신나고 재미있는 방학식이나 명절을 위해 단기 방학을 하는 것이 신기하고 부러웠다.



2. 시아누크빌



캄보디아의 설날인 쫄츠남을 맞이하여 우리는 캄보디아 남해안에 위치한 도시! '시아누크빌'로 여행을 떠났다. 캄보디아 말로 "کمپុងសៀម"라고 불리며 아름다운 백사장과 바다가 매력적인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매력적인 이 도시에 푹 빠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How did you FEEL?

- ▶경서 : 쫄츠남을 맞이하면서 다일 센터 식구들에게 어디에 놀러 가냐고 물었을 때 '돈이 없어서 집에 있다'는 대답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시아누크빌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 좀 미안했다. 하지만 휴가를 가서 돈을 여유롭게 쓰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행복을 더 추구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후회 없는 휴기였다. 서양인이 많아서 좋았다.
- ▶정민 :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이라 좋았다. 신났다. 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캄보디아식의 쫄츠남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2Hearts를 가진 아수라 백작 같은 내 마음...
- ▶성희 : 생각 없이 걱정 없이 놀아서 좋았다. 휴가는 휴기니까. 오히려 캄보디아 같지 않은 곳이라서 좋았다
- ▶하늘 : 나이트버스가 재미있었다. 시아누크빌은 음식도 싸고 맛도 좋았다. 캄보디아지만 전혀 캄보디아 같지 않은 곳에서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 ▶나래 :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일정이 짜여진대로 움직여야 하는 제2의 수학여행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온전히 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Q. 급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 휴가란? 휴식이란?

- ▶ 경서 : 못 가본 곳을 가보고 못해본 일을 하는 것이 휴가. 난 떠나야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쉬는 것이 휴식이다.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시간. 외국은 자유로워서 좋다.
- ▶ 성희 :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생각이 깊어질 수도 있다. 나는 떠나는 자유가 좋다. 봉인해제!
- ▶ 하늘 : 온전히, 내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터치 받지 않고 갖는 휴식. 생각도 없고 일정도 없고. 온전히 쉬는 이 시간들이 소중한.

▶ 나래 : 혼자만의 공간에 있거나, 목적 없이 음악을 들으며 혼자 걸을 때..이때만큼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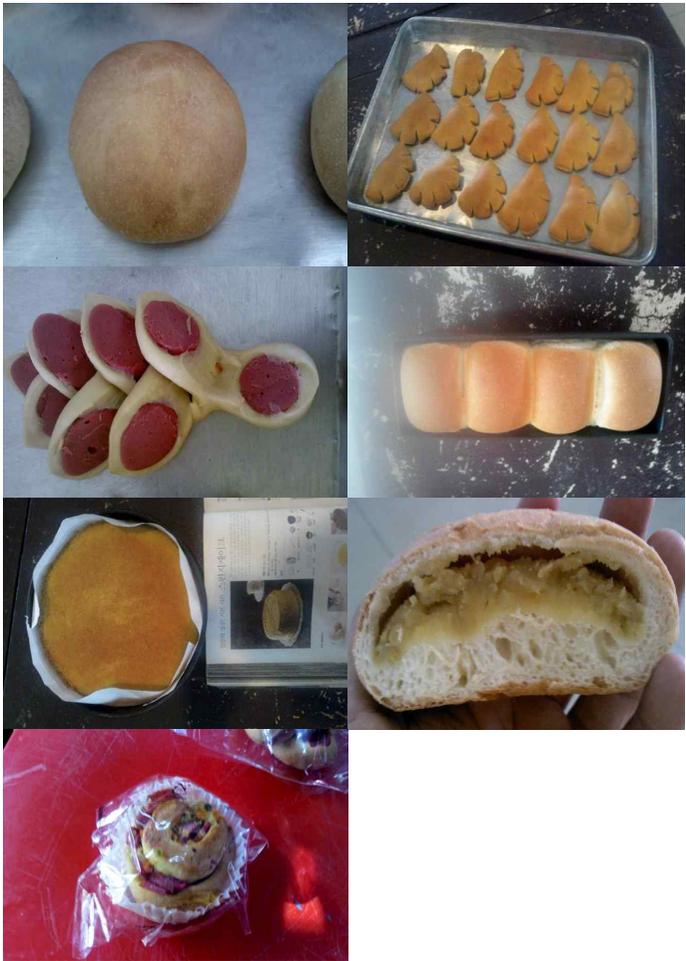
▶ 정민 : 나는 떠나는 것을 갈망하지만 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정작 휴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알바 인생이었을 때 휴일엔 무조건 잤다.) 내게 휴식이란..? 그냥 무엇을 하지 않는 시간. 조~용한 시간이다.

■ **공통의 의견** :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혼자 or 같이. 순간순간 자신이 하고 싶던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휴식이다!!



3. 빵퍼 이야기



신상 빵 업데이트

1	2
3	4
5	6
7	

1.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 가 있는 영양만점 **야채빵**
2. 달콤한 슈크림이 일품인 **슈크림 빵**(쉽게 만나볼 수 있는 빵이 아니다...)
3. 한국과는 다른 맛이 나는 소세지를 느낄 수 있는 **소세지 빵**
4. 주일 예배 예찬식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식빵**
5. 케이크 사업 준비단계에 있는 빵퍼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스펀지 케이크**
6. 다른 건 필요 없다. 으깬 고구마 100%. **고구마 빵**
7.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야채 롤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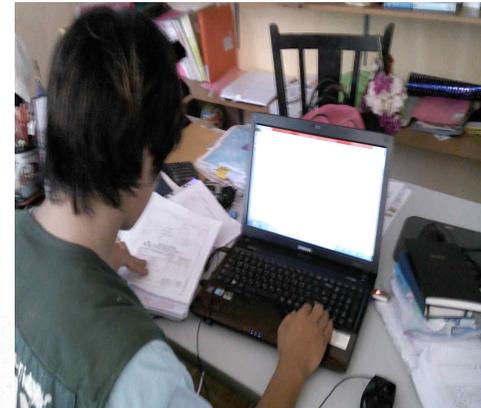
우리들의 사소한 빵퍼 이야기

▶ **달라진 명덕 선생님** : 중국 다일 공동체에 제빵 기술을 익혀

캄보디아 씨엠립 다일 공동체에 빵퍼 장으로 오시게 된 명덕 선생님.

장이라는 직급에 비하여 그 동안 다른 다일 스텝들이 빵퍼 운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 빵퍼 운영이나, 행정 업무 등에는 크게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초 해원협 소속의 이명진 간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에는 명덕 선생님이 빵퍼 회계, 시장조사 등 빵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뚝네샵 빵퍼 배달기

햇살이 뜨거웠던 어느 날, 아피 여자 단원들은 다일 공동체의 초록색 조끼로 옷을 갈아입고 캄보디아에 온 이래 처음으로 뚝네샵 마을로 빵 배달을 다녀왔다. 모두의 머릿속에 유명한 관광지로서 인식 되어있던 뚝네샵. 하지만 그 실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다일이 위치한 마을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 그리고, 준비한 빵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비록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뚝네와 달라 실망과 낯선 감이 공존했지만, 그 속에서 아피들은 이 곳 역시 빈곤을 논하기 전에 사람이 사는 그저 하나의 평범한 마을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P.S 뚝네로 가는 길목에서 캄보디아의 보물 중 하나인 일명 '3D구름'들의 향연을 보았다. 내리쬐는 햇살아래 주변이 온통 푸른 별판이고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어서인지 뚝네의 하늘은 정말 '청아'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다)



4. 쌀 라 아 피

 **쫄**츠남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쌀라아피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다일 주변과 학교에 홍보물을 부착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 느껴 '개인등판홍보물'을 만들었다. 각자가 맡은 과목에 대한 홍보를 자신의 등에 붙이고 생활하는 것인데, 이 등판홍보의 효과가 대단하다! 아이들이 모인 곳에 가서 "쌘 안 (읽어주~)" 하고 말하면 아이들이 큰소리로 읽어주고 이게 소문으로 퍼지고 퍼지고 퍼지고~. 왠지 느낌이 좋다!

하지만 이런 홍보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리코더반의 인기가 너무 없었다. 다들 즐기치게 신청을 받고 있을 때 나라만 쓸쓸... 그래서! 그 날 나라는 집에서 리코더를 연습하고 다음날 센터에서 KT&G의 위생 봉사하는 곳에 가서 피리를 불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연주가 끝나자 현장에서 즉석으로 리코더 반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늘었다!





먼저 단원들의 쌀라아피 소개하자면 한국어 교실, 미술반, 리코더반, 그리고 새로 개설한 K-POP반이 있다. 한국어 교실은 성희와 하늘이 20명을 가르치고 있다. 미술반은 노아(정민) 밑에서 19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리코더반은 나래와 함께 13명이나 배우고 있다. K-POP반은 초반의 폭발적인 청소년아이들의 반응이 있었으나 수업참여인원은 현재 9명이다. K-POP반은 경서와 다일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파리와 함께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다.

처음에는 수강인원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받았다. 그런데 정말 예상 오로 수업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수강인원을 더 늘렸는데도 모자랐다.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이지, 그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 알 것이다. 그래서 처음 예상했던 주 2회 수업을 포기하고 각자 능력에 맞게 조절하였다. 혼자서 19명을 가르치는 노아(정민)같은 경우에는 주 4회 쌀라아피를 하고 있다. 단원 모두가 지금도 받아주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깊다.ㅠㅠ





새로운 과목인 K-POP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 처음의 의도는 한국어 교실과 K-POP을 접목시켜 노래도 배우면서 한글의 뜻도 아는, 정말 놀면서 배우는 한국어를 생각하고 K-POP반을 만들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아이들과 OT를 갖으며 이야기했는데 노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K-POP이 좋아서 왔다고 말해서 지금 운영방식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다. 다른 쌀라아피반은 대부분 12살 이하의 아이들인 반면 K-POP반은 14~18살의 “중딩!”들이 대부분이다. 엉까다일에서 잘 보기 힘든 청소년아이들이라 K-POP반이 청소년과 다일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실제로 다일에서 보이지도 않던 몇몇의 청소년아이들이 최근 K-POP반의 등장과 함께 다일에서 보이는 횟수가 늘어났다!



모두 이렇게 열심히 쌀라아피를 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단원 혼자 책임으로 운영되는 반이 있는 것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이 우리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한다. “록끄루, 넥끄루 (선생님)” 하고 먼저 다가와 인사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또 신청한 아이들이 자의적 선택에 의해 왔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몰입도가 엄청나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도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라온아피’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문득 드는 생각은 처음 쌀라아피에 대해 팀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우리가 하는 과목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를 이용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심어주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몇 번의 수업을 하며 느끼는 것은 각자의 수업에서 어떠한 가치를 느끼면 더욱 좋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충분히 즐거워하며 쌀라아피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었다. 맞다.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 아닐까?

5. 도서관 프로그램



고민씨란씨란!!



캄보디아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고민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그대로 집에 가고, 청소년들은 도서관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아예 꺼려한다. 도서관이 이곳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정서와 더 잘 맞는 도서관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듯 보인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오거나 시간을 보내러 오는 것이 익숙지 않은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흥미를 가질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많아 항상성이 없기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청소년의 부재에 대한 고민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문화적인 콘텐츠가 적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특성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도 청소년기에는 책보다는 게임이나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도서관도 잘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도서관이기에 청소년 또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본다. 청소년들이 사용할만한 악기나 조리도구들을 마련하여 청소년들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에 그럴만한 공간이 없고 다양한 도구들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그래서 더 생각해본 것이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이 모임을 할 때나 동아리같은 것을 모집하거나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관참을 것 같다.

도서관 정비에 대한 생각

중복되는 책이 많고 한국어 동화책이 많아 앞으로의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서라도 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 후 부족한 것(다양한 콘텐츠, 크메르어 동화책 등)들을 앞으로 채어나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 또 앞으로 채워가야 할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 벽에 붙어 있는 그림들과 작품들도 정리해야할 것이다. 도서관 정비 문제는 이제부터 도서관을 책임지게 될 가영단원과의 정기적인 컨택을 통해 논의를 하여 이끌어가야 할 것 같다.



♥첫 도서관 프로그램! 조개빙고!

우리가 도서관의 첫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빙고게임. 일정이 끝나고 센터 앞에 나가보면 많은 아이들이 다 먹은 조개껍데기로 빙고와 비슷한 게임을 하는 것에 모티브를 얻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친해지기에는 딱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를 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과는 달리 모든 칸에 숫자를 채울 필요가 없어 64칸에 1부터 64의 숫자 중 임의로 36개만 적어 넣기로 했다. 단순히 숫자를 적는데 왜 그렇게 고민이 되던지. 그리고 숫자를 중복해서 부르지 않기 위해 숫자종이 64개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캐릭터 달란트도 만들었다. 달란트 디자인은 이곳에서 한창 유행 중인 앵그리버드로 하기로. 빙고 게임을 통해 얻게 된 달란트의 개수에 따라 나누어 줄 연필, 색연필, 공책 등의 상품들도 준비했다.



6. 스텝 한국어

역량 강화	한국어수업				
	영어수업				

아띠들이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듯, 다일 공동체 캄보디아 현지 스텝들도 4월부터 매주 화, 목요일 하루 한 시간씩 우리 아띠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배우고 있다. 지난 3월말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총 5개반(상 1, 중 2, 하2)으로 반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일 공동체 내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포함 시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캄보디아 현지 스텝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이곳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텝한국어 반을 소개합니다 ^^

- 하** : 한글의 기본인 자, 모음과 인사말 등 실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회화를 공부하고 있다.
*하1반 - 스텝 : 스레이멈, 쯤니(조경서) *하2반 - 스텝 : 노부야, 린스레이멈(이나래)
- 중** : 자, 모음과 기본적인 회화 외에 문법, 표현 등 보다 난이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1반 - 스텝 : 분성, 사루앗(정하늘) *중2반 - 스텝 : 펄라, 사로앗, 펄리(이성희)
- 상** : 다일의 현지 통역을 맡고 있는 스텝인 파리가기 때문에 하 반과 중 반에 수업을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문법과 더불어 실제 한국인에 대화에서 사용하는 문장과 단어 등을 수업하고 있다. *상1반 - 스텝 : 리 파리(노아)





스텝 한국어에 대한 두런두런 이야기

아피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외적인 면 중 힘든 점은 역시나 자체 레벨 테스트의 실패로 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는 다르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성희 단원의 경우 주 2회 수업이 주 4회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상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일정 측면보다 아피들을 힘들게 한 것은 스텝들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약한 의지였다. 비록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수업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더 정확한 수업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스텝들은 다일의 봉사자가 아닌 직원이기에, 서로 간 소통을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우야 할 텐데, 그들 중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자들이 몇몇의 불가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성과금 등 한국어 공부에 보상을 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였지만, 이 역시 한국어 공부에 의지를 둔 자만을 위한 보상이 될 수 있기에, 보상은 결국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현지 스텝들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역시 우리 아피들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바와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7. 정전 / 차 고장



 비교적 선선한 3월을 보내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 쪼는 4월의 캄보디아. 날씨가 더운 만큼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과 후 샤워하는 횟수, 에어컨 가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우리에게 별을 주기 위함이었을까? 정전, 드디어 말로만 듣던 암흑의 천지를 경험하는 순간이 왔다.

캄보디아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관광도시(시엠립, 프놈펜)를 제외하고서는 불빛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활동 지역인 프놈크라운 마을을 밤에 방문 하면 차의 전조등이 없다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에 가로등이 전무하다. 이는 캄보디아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여 이웃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전기를 수입하여 가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세도 비싸고, 전기를 끌어오는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 및 캄보디아 사람들의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아껴 써야하는 인식이 당연한 바탕이 되어있다. 캄보디아 언어로 전기가 '아끼쓰니'인 것만 보아도 이 땅에서 전기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아끼쓰니, 과연 우린 아껴 썼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전기라는 편의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350ppm이라는 환경 캠페인을 생활화하자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공감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훈련 당시 나비효과 등의 워크숍에서 느꼈던 것처럼 정전이 나고 고쳐져 다시 에어컨이 가동되는 일상으로 돌아오자 이걸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하였다. 즉, 그냥 전기의 부족과 소중한함에 대해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에 우리의 사고가 멈출 뿐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공감은 하되 아끼쓰는 행동력으로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전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전기로 하는 것이 정말 많구나 이다. 전기로 물이 가동되고, 에어컨이 가동되고, 인터넷의 wi-fi가 작동되는 등말이다. 이러한 문명이 차단되는 순간 인간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구나를 느꼈다. 맘에 찌들어 있지만 샤워를 할 수 없고, 선풍기와 에어컨이 가동이 되지 않아서 잠을 잘 수 없고, 우리의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이 되지 않자 마치 바깥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정전이 되어 좋았던 점은 일과 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전기를 고쳐보기 위해 양초에 의지해 거실에 모여 있고, 차라리 밖이 시원하여 마당으로 나와 망고를 따는 등 문명에 의해 개인화 된 우리를 잠시나마 모이게 해주었다. 또한 손 편지, 필름 사진, 알기장과 같이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주었다. 이렇게 짧지만 강하게 우리의 노를 때려주는 암흑의 세계, 정전의 2박 3일 체험이었다. (물론 이후에도 잠깐 잠깐의 정전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다.)



공지합니다. 우리들의 약속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핸드폰 및 인터넷과의 소통을 차감할 것입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일 테지만 잠시나마 쉼터와 떨어져 환경과 더 나아가 350ppm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8. 아피 풍풍 / 환경 송



 **빨리** 빨리 진행되진 않지만 꾸준히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아피 풍풍과 환경 송 만들기!

(모르는 사람은 3월 보고서를 보길) 추진력이 조금 부족했던 감은 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터넷으로 만드는 방법을 뒤져보았는데 EM발효액이라는 효모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잠시 멘붕의 상태로 포기해야 하나 했지만 다행히 EM발효액이 없어도 설탕과 소금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4월 22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지구의 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쌀뜨물 친환경세제 만드는 법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

- 하**나. 쌀을 씻고 처음 나오는 물을 모아야 한다. 되도록 찻재물만 사용하도록! 1리터를 페트병에 넣는다.
- 둘**. 설탕 두 수저(밥수저), 소금 한 수저를 넣고 열심히 흔들어서 녹인다. 여기서 설탕은 흑설탕. 즉, 정제가 덜된 설탕일수록 더욱 좋다! 소금 또한 맛소금보다는 정제가 덜된 천일염으로! 발효를 더욱 더욱 잘 도와준다는.
- 셋**. 상온(25-30)에서 5~7일 정도 발효시킨다. 1~2일에 한번 뚜껑을 열어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페트병 폭발!
- 넷**. 약간 막걸리 비슷한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무사히 발효가 된 것이다. 이것으로 그냥 설거지를 할 수 있지만 거품이 나지 않아 이게 세척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평소에 쓰던 주방세제를 물과 1:10의 비율로(세제비율을 더 낮게해도 좋아요) 섞어서 사용하면 "쁘드득 뿌드득" 쌀뜨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피는 한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아피 풍풍 1호와 2호 제조에 성공했다. 시름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발효 후 냉장고에 하루 넣었다 사용하라는 잘못된 제보를 받아서 첫 시도는 실패! 한번 만드는데 1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만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지금은 먼저 집에서 다일 식구들을 대상으로 상용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집에서 이제 생활이 되면 바로 원장님과 회의를 통해 다일센터에서도 아피 풍풍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리응 짜어 무어이 크눔!! (나와 같이 노래 불러요!)

환경송은 먼저 노래선정과 개사(한글내용)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 배식소에 출현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어 원인을 찾아보니 껍질 과일을 주는 날이 줄어들었고 또 3월에는 아이들이 콩나무에서 콩을 따먹었는데 요즘에는 콩나무에서 콩이 나질 않아서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원인을 찾았다. 어쨌든 각자 담고 싶은 내용을 나눈 결과 노래의 내용은 이렇다. 노래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을 개사했다.

“내가 버린 컵데기 하나 (미흔반냐(문체있어!)) 내가 버린 병다리 하나 (미흔반냐)
쓰레기가 모여서 괴물되어 찹아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헛차! (최고))”

현지 스텝과 함께 크마어어로 다시 바꿔야 하는데 요즘 쌀라아피와 도서관프로그램까지 오픈되면서 아피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져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울동과 함께 다일에 올려 퍼지는 “지속가능한” 환경송을 기대해본다.



이름이 뭐예요?

아띠
개러리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루 3번 말한다.

나를 웃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곳이 좋다





넌, 나에게 100%.



더 바랄게 없는 나쁜 밤^^

 보드카레인 - 넌 나에게 100%



그래, 그렇게 조금 웃어봐 ♥



너가 웃으니까 내가 더 행복하잖아 ♥

노아

9.5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 딱딱한 회의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자유로운 대화가 오고가는 시간이다.

4월의 주제는 다시 국내훈련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라온아피의 3대 질문의 하나인 라온아피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의 토론이 3시간이나 진행될 정도로 진지한 대화가 오고갔다.

짧게 정리해보면 노아(정민)는 쓸데없는 욕심, 생각을 버리고 싶고,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느끼면서 관계의 중요성(사람vs사람) 및 의미 있는 삶(여기서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싶다고 하였다. 성희는 지금 현재 국내 훈련에서 얻고자 했던 답에 대한 생각을 마쳤다고 했다. 언어의 장벽을 느끼면서 완벽한 언어의 구사가 아니면 해외원조에 대한 생각을 선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남은기간동안 자신이 주력할 것은 많은 마을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경서는 오히려 많은 고민을 얻어서 한국에서 계속 해서 고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서 고민은 처음에는 도피(경쟁이 치열한 학교 공부에 대한 도피)의 목적으로 놀다가자는 생각이었으나, 활동을 해가면서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를 하려는 이유와 이를 통해 보상과 지원을 바라는 대학생들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다. 하늘이는 국내 훈련 당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성희는 '그건 가자마자 이를 수 있는거 아니야?'라고 반문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 달을 활동하면서 언어 장벽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는게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현지스텝으로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다일이라는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한국인 스텝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얻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라는 나를 찾기 위해 떠난다고 했었는데, 자신을 찾으려다보니 오히려 시야가 좁혀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떠한 의미부여를 떠나서 정말 그냥 프놈프라운 마을에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잘 살다 가고 싶다고 했다. 3월에는 항상 출근길 가방 속에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e-ticket을 넣고 다녔는데 '잘 살다가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4월의 말 가방 속에서 e-ticket을 뺐다고 한다.



바칼로레아의 두 번째 주제는 '휴대폰'이다. 정전을 겪으면서 wi-fi의 소중함을 느꼈고, 이와 더불어 성희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그 후 며칠 뒤 하늘이는 달리는 토근길 트럭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휴대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는 4월이었다.

휴대폰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의 생각은 정말 다양하였다. 경서는 정보 검색처 및 친구와 포래집단의 친목도모 용도로 전락되어버린 스마트폰의 폐허에 대해, 성희는 핸드폰 facebook이 떠오르고, facebook이 현실의 자신보다는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가면화된 글이 많아짐의 폐허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노아(정민)는 자신이 기록중독자인가? 할 정도로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성희의 의견과는 반대로 자신은 facebook에 글을 올리면서 오롯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사진도 바로 올릴 수 있어 그것이 가면이 아닌 날것의 자신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나래는 휴대폰은 이기적인 자신이라고 하였다. 대면관계에서는 항상 가식으로 웃으면서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받기 싫은 연락을 모른 채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기적인 진짜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하늘이는 핸드폰(스마트폰)의 대체는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있는(facebook보다는 손으로 매일의 일기를 쓰는 하늘)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통장계좌등을 적어 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당시 자신이 너무 기계한 대에 의존하고 있음에 무서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렇게 휴대폰에 대해 다양한 대화가 오고갔지만 우리들의 대화의 끝맺음은 “많은 나쁜 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은 바로 휴대폰(스마트 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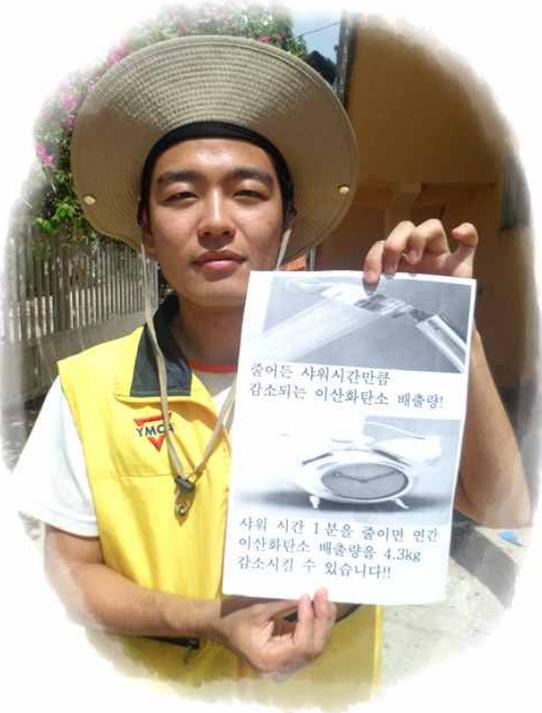
당신에게 휴대폰은 어떤 의미인가요?



10.

아띠생각





캄보디아에서 한 달을 보내고, 맞이한 4월을 부리나케 보내고 든 생각은 역시 나는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보통 해외봉사 하면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눈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과 열악한 환경 일 것이다. 이곳에서 접하는 봉사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것이 어쩌면 봉사의 증거물(?) 이라 할 수 있는 듯하다. 물론, 나 역시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 캄보디아에서 지내 보자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는 것은 그들 역시 결국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듯, 그들 또한 우리, 그리고 나를 그저 외국인일 뿐 무조건 친구로 받아드리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게 돼서인지 몰라도 요즘 들어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시는 친구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길에서 만나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 가만히 있으면 다가와서 장난을 걸어주는 친구, 이렇게 서로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에 무조건 적으로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라던 거만했던 내 생각이 점점 겸손해짐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또 한 가지를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현지인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현지인들의 삶을 보면 현실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다. 열악해 보이는 주거환경, 꾸준하지 못한 교육환경 등 우리가 보면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안쓰러워하는 모습은 그저 그들 삶의 자연스런 모습일 뿐일 수도 있으며, 스스로들은 이러한 환경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정하는 시선은 현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은 일정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을 지니며 현지인들의 삶을 바라보기 보다는 **삶 자체로서의 모습을 보러 노력하는 자세를 지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P.S) 지난 보고서에 지키지 못한 한마디 약속, 들어가십쇼 :)

▶♥◀ Think about 350PPM

샤워를 하는 시간을 1분만 줄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3kg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샤워다. 줄이자 시간. 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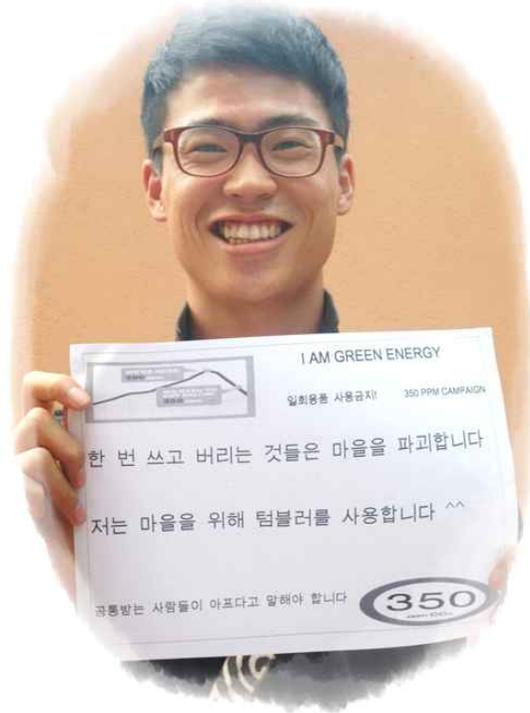


성희 생각

100일이 깨졌다. 100일도 안남았다. 말도 안된다. 빠르구나.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한국에 있을 적에 가지고 있던, 라온아띠를 통해 답을 얻으려 했던 질문에 대한 나 자신의 답을 찾았다. 너무 빠르다. 그럼 이제 무하라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띠 모두와 같이 바칼로레아의 주제로 우리가 국내훈련에서 받았던 3대 질문을 다시 끄집어내었다. 나는 누구인가. 라온아띠를 왜 지원했는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번 바칼로레아는 특히 3번째 질문,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집중했다. 답하기 어려웠다. 이미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 이 시점. 중요하다 생각했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 소진이 올 것 같은 느낌. 차근차근 생각했다. 슈퍼맨이 되지 말라했고 슈퍼맨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오니 조금이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다. 하

지만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눈곱 만큼도 없다는 것을 한달 사이에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슈퍼맨이 아닌 친구라도 되려고 다짐했다.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내가 너무 욕심이 컸다. 그들이 그저 즐기고 그 상황에 기뻐했다면 그걸로 족하다. 어떠한 가치관, 이념, 세계관을 살며시 알려주면 금상첨화겠지만 욕심이였다. 준비도 안하고 그럼 큰 꿈을 꾸 내가 욕심쟁이였다. 그냥 내가 옆에 있어 함께 놀고 함께 웃을 때 그때 그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면, 그거면 충분하다. 아니, 그것도 어렵다. 센터에서 일을 하며 가장 기분이 좋을 때를 생각해보았다. 역시 가장 기쁠 때는 아이들이 먼저 “썩~” 하고, “록끄루” 하고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던 순간들이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기에 와서 가슴으로 느낀다!



▶♡◀ Think about 350PPM

4월의 정전사태 때 다시 한 번 알게 된 인간의 나약함. 문명의 편의가 없으면 정말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렇기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 더욱 추하게 문명에 집착하는 것이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나 관념만으로 지구를 생각하는지를. 40도에 가까운 더위와 맞서고 집에 돌아오면 에어컨에 대한 집착은 더욱 더욱 커져만 간다. 춥다고 느껴도 에어컨은 잘 돌아간다. 멈추지 않는다. 진정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려면 포기해야 편의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편의들을 포기 할 수 있는 열정은 부족하다. 일관된 행동 또한 어렵다. 어느 날은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또 어느 때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공감이 부족한 것일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왜 이리도 힘이 들까. 진정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것인가! ππ 어쨌든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생각이라도, 공감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다소 긍정적” 생각을 해본다. 미션으로의 350ppm이 아닌 생활에서의 350ppm이 되길!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3월이 훌쩍 지나 4월이다. 4월의 캄보디아는 정말 절정의 더위를 달리고 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우리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만 같다. 언제나 웃음만큼은 잃지 말자던 나의 다짐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는 4월의 초반이다. 이러한 날씨의 탓인지 몰라도 4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쫄츠남이라는 캄보디아의 신정이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포상휴가를 주었다, 자~ 이제 떠나자. 시하누크빌로! 시하누크빌로 가는 나이트버스에서 나는 신나게 놀자는 생각이 앞섰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나래 너 3월 한 달동안도 빈둥거리며 놀지 않았니? 그런 너가 또 일주일을 그것도 프놈끄라운 마을에서 노는 것도 아닌 휴양지까지 갈 처지니?’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나의 이런 복잡한 감정은 싹 사라지고 시하누크의 여유로움과 휴식에 온전히 나를 맡겼다. 여유로운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온 4월 16일. 어느 덧 4월도 중반을 달리고 있다. 3월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움직임들이었다면,



4월에는 쌀리아띠, 도서관 프로그램의 시작, 프놈끄라운 중학교의 한글 수업 등 우리가 라온아띠로서 날라리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만 하는 활동들이 주가 되는 달이다.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노력해 준 팀원 들 덕분에 여러 활동에 있어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주어 너무 고맙다. 쌀리아띠로 내가 맡은 반은 리코더반. 부족한 나에게 ‘짜리야’라는 현지 이름을 지어주면서 밥퍼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의 등을 꼭 찌르며 “짜리야, 오늘 리코더 수업해요? 밥 빨리 먹고 갈게요!”라고 말해주는 아이들이 생겼다. 내리쬐는 햇볕에 웃음도 사라져 있던 내 입가에 함박웃음을 짓게 해주는 친구들이 이 있어 너무 행복한 순간이다. 또한 중학교 한글교실에서 내가 맡은 반은 9학년. 9학년 친구들은 여러차례 아띠를 경험한 만큼 한국에 관심은 있지만 그 관심은 K-POP만 인 것 같다. 아직 한국어를 잘 모르고, 반 친구들의 절반은 수업이 듣기 싫어 빠지기 일쑤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어 힘이 난다. 4월의 어느 날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지쳐갈 때 목적 없이 프놈끄라운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9학년 친구 몇몇이 집 앞에 모여 놀다가 한국말로 “나래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넉끄루 떠나?(선생님 어디가세요?)”라고 물어보며 같이 놀자고 하는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과연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곳에서 나를 기억해 줄 사람, 아니 친구도 못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쌀리아띠와 중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반성되는 점은 부족한 나의 캄보디아 언어수준이다. 부족한 만큼 더 배우려고 노력해야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부족한 내 자신만을 탓하고 있는 나..... 한국어를 가르치고, 리코더를 가르치면서 넉끄루라는 말을 들으려 하기 이전에 나부터서 캄보디아를 배우고, 더 나아가 이곳의 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우려는 써 ≡ (학생)이 되어야겠다.

4월, 비록 날씨는 더웠지만 날씨만큼 나의 마음 한켠에서도 뜨거운 열정이 달아오르려고 하는 순간이다.

▶♡◀ Think about 350PPM

캄보디아에 오기 전 국내훈련에서 지구시민교육, 나비효과등의 워크숍을 통해 나는 현지에 가면 전기도 아껴쓰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등 지구시민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오니 나는 또 한명의 날라리였다. 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편의만 추구하였다. 나의 다짐들은 곧 지켜지지 못할 약속들로 남았다. 따라서 나는 남들을 쫓아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가장 생활 속에서 내가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4월에도 나는 3월과 마찬가지로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환경 특히 물 아껴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양치컵 이용하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3월 중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지켰던 행동인 만큼 이번 4월도, 아니 앞으로도 나는 “양치컵 사용”만큼은 나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슬로건이다.



하늘 생각

이번 달에는 입에 ‘덥다, 더워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다.
햇빛은 피부를 뚫고 들어올 듯 강렬하고, 바람 한 점이 아쉽다.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올라다 본 하늘은 알미울 만큼 한층 더 아름다워졌다.
비는커녕 먹구름조차 거의 없는 날들에 하루에도 몇 번씩 현기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망고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더운 계절에 더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 말이 참 야속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말에 세상의 이치가 담긴 게 아니었을까.
나에게는 힘든 것일지라도 다른 어떤 것들에게는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4월은 이렇게 덥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았다.

쫄츠남으로 인해 휴가를 받았고 그래서 시아누크빌의 한가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취할 수 있었다.

그동안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 인사밖에 못했던 아이들과 쫄츠남 방학식을 계기로 즐겁게 춤을 추기도 했고 하루에 한 번씩 동네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며 여러 사람들과 날씨가 덥다는 한마디라도 주고받을 수 있었다.

많은 전기 사용량으로 인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전기를 고쳐야했지만 그래서 평소에 몰랐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도 있었고, 이곳에서 찜질방을 방문하는 특이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더위에 지쳐도 그만큼 고맙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던 날들이었다.



3월에 시작된 일들이 익숙해질 무렵 도서관 프로그램과 쌀라아띠가 또 시작되었다. 시작은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을 동반하는 것 같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함께 놀 생각에 설렘고, 쌀라아띠를 신청하는 아이들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을까 두려웠지만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설렘다. 다행히도 두 가지의 시작이 모두 생각보다 성공적이어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언제 다시 하냐며 물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기분 좋았고 한글반에 더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특히 쌀라아띠를 통해 만난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아주 개물어주고 싶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들이 많이 기대되면서도 앞으로 3개월도 남지 않은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면서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아이들과 헤어져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되면서 친해지는 것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다.

▶♡◀ Think about 350PPM

일주일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져 더디게 진행되는 환경송과 350ppm 캠페인. 센터 주변의 환경을 보며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수업 준비로 바쁘고 학교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뒷전이 된다. 바로 그만큼이 내가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각심이 아닐까 싶다. 내 집 주변이 이렇게 매일 더러워지는 상상을 해본다. 전기를 아껴 쓰거나 물을 아껴 쓰는 일 또한 그렇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혼자 살 때가 오히려 더 지구시민이 아니었을까. 다만 차이점을 느낀다면 내가 전기를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를 체감한다는 것. 내가 그냥 씻고 마시는 물도 이곳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귀하다는 것을,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콘센트에 꽂아 돌리는 선풍기나 에어컨도, 냉장고도 이곳에서는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것을. 불편한 것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가장 명쾌한 답이자 가장 어려운 일이다. 지금은 그저 봉지 하나 덜 쓰고 전깃불 잘 끄는 것부터 습관화 해야 할 것 같다.



♥ 공동체

처음 캄보디아로 떠나면서 Y가아닌 다일이라는 공동체로 들어가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 '왜 우리만 다른 거지?'라는 걱정과 약간의 반감이 있었다. 하지만 다일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살아보니, 국내 훈련 내내 수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뭘지 잘 몰랐던 '공동체'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 공동체.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단순한 '함께'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일상 소소한 작은 일에도 같이 웃으니 더 즐겁고,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내 생각이 자란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공동체의 누군가는 나에게 엄마도 되어주고, 선생님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준다. 세상에 공동체라 불릴 수 있는 곳과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그 공동체만의 문화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구성원 한 사람임에는 틀림 없다. 나도 다일 공동체의 식구로써 이 좋은 사람들과 더 써바이 써바이(happy)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 언어가 늘어가며

언어는 참 신기하다. 어렵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한 표현 한 표현이 입에 붙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더~ 하고픈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2달이 지나가는 요즘, 언어가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리얼 캄보디아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마냥 '안녕~'하고 인사만 하던 아이들과 학교, 가족, 친구, 꿈, 공부....뚝뚝으로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엔 몰랐던 아이의 행동과 성격, 표정의 이유를 알겠고 작지만 내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 스텝들과의 마음이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언어만큼 정확하게 상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본격적으로 크메르어 선생님과 수업이 시작된 지금, 나는 더 잘하고 싶고 더 사람들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 정신건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가 즐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무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작은 일에도 CPU에서 램이 할당 되듯이 생각의 끈이 할당된다.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게을러 보인다. 이건 완벽주의와는 좀 다르다. 이 모습은 지극히 라온아띠가 지양하는 모습인데 내 속의 나는 이렇더라. 하하하.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사가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게 아니라서 내가 계획한 타이트한 삶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오히려 내 허를 찌르고 그 ‘헐’하는 순간에 비소로 숨을 한번 쉰다. 전날에 열나게 수업준비를 하고 다음 날 프놈그라운 중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때. 내 머리 속 꼭 막혔던 답답한 것들이 한 순간에 씻겨 내려간다. 웃는다. 그리고 알게 된다. 너무 딱딱 맞춰 사는 삶이 얼마나 재미없는가. 성격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살려고 이 먼 땅까지 온 것이 아니란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니 남은 시간 아주 ‘바보온달축구바보’ 처럼 살아야겠다. 행복하기도 모자란 시간이니게!

▶♥◀ Think about 350PPM

이면지 사용.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것들이라 내겐 자연스럽다. 새 공책을 쓰는 것이 아까워 집에 남아돌던 이면지를 묶어서 학교에서 연습장으로 쓰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면지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번 달에 우리 팀은 이면지를 도서관 프로그램과 유치원에서 활용했다. 조개빙고를 할 때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빙고판과 유치원 미술교육의 base 그림으로 이면지를 사용하였다. 우리가 프린트를 쓰는 이상 이면지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알아보니 정부나 회사 같은 곳에서는 이면지 사용이 오히려 복사기의 부품들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더 손해라서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데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재사용을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먼저 개인의 공감과 실천이 부족한 건 아닐까?

성희 오빠가 ‘공감력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지금도 완벽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아닌 환경에 관해서는 더욱이. 하지만 나는 공감력과 더불어 ‘행동력’을 말하고 싶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도 생활 속 우리가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많다. 내가 좋아하는 조혜련이 말한 ‘상위1%의 행동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이 그렇 듯, 환경 또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남들이 할 꺼라고? 내가 안하면 남도 안 한다.

무언가에 대한 진정성이 완벽하다는 표현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행함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완전한 것이 된다.

다음 말에 만나요!! 어쨌든

